

힝클리 대관장이 캐나다 노바 스코샤, 아프리카, 멕시코 등지에서 회원들을 격려함



멕시코 치와와에서 한 통역자의 도움으로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을 하고 있다.

1998년 초반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고자 몇 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장도에 올랐다. 아프리카 5개국, 캐나다 일부 지역, 카나리아 제도, 카보 베르데 등지를 2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방문하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을 수행했다. 비행 시간 54시간, 여행 거리 40,000킬로미터가 넘는, 최장거리 여행으로 기록될 힝클리 대관장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그는 교회 대관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남극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방문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2주 후인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멕시코 북부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멕시코 순방 길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와 멕시코 북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의 에란 에이 콜 장로가 수행했다.

캐나다 노바 스코샤

목요일에 아프리카 순방 길에 오른 힝클리 대관장은 2월 12일 캐나다, 노바 스코샤, 핼리 팩스에 기착했다. 세계 무역 상품 회의소에서 주변 연안 지역에서 온

1,700여 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힝클리 대관장과 홀랜드 장로가 말씀을 했다. 함께 배석한 북미 북동부 지역 회장단 2보좌인 도날드 엘 스타헬리 장로도 회원들에게 말씀하는 기회를 가졌다.

뉴펀들랜드의 세인트존스에서 온 한 회원은 이같이 말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운전을 해서 오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간에 이곳에 오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모든 수고는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예언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노바 스코샤의 노스 시드니에서 온 대프니 올리버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예언자와 함께 한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태껏 체험해 보지 못한 강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2월 13일 금요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아프리카 도착에 앞서 북서 아프리카 앞바

다인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시에 도착했다. 힝클리 대관장과 홀랜드 장로는 라스팔마스에서 유럽 서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영접을 받았다. 민속 의상을 곱게 입은 어린이들이 호텔에서 힝클리 대관장을 환영하며 꽃과 팀플이라는 우쿨렐레를 담은 민속 악기를 선사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라디오 및 신문 기자들과 기자 회견을 갖고 한 지방 정부 관리와 접견을 한 뒤 국회 의사당에 모인 800여 명의 회원들에게 말씀을 했다. 기자 회견 중에,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고양시켜 주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푸에르테벤추라 지방부의 프랜시스코 바레라 지방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선교부장님이 제게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대관장님을 맞을



멕시코 에르모시오 시의 소노라 대학 내의 누에보 김나지오에서 힝클리 대관장이 인근 10개 지역 사회에서 모인 3,100여 명의 말일성도에게 말씀을 하였다.



헝클리 대관장이 카나리아 제도에서 어린이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다.

준비를 갖추는 것을 보면서,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문으로 우리 회원들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2월 14일 토요일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한 헝클리 대관장은 나이지리아의 포트하커트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의 영접을 받았다. 메이슨 장로는 헝클리 대관장의 아프리카 순방 기간 동안 내내 그분을 동행했다. 어린이들이 헝클리 대관장을 위해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후, 그는 벽이 없는 콘크리트-양철 건물에 모인 1,100여 명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다.

신권 지도자 모임을 마친 후 칼라바 지방 부장인 이모 에쉬엠티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언자께서 이같이 방문해 주신 것과 부름에 헌신하라고 형제들에게 주신 그분의 권고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지역 사회에서는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날인 2월 15일 일요일에 헝클리 대관장은 몇 곳의 교회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아바로 갔다. 헝클리 대관장은 연도에 단정한 차림을 한 아바스테이크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수백명 도열하여 작은 나이지리아 국기를 흔들며

반가와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와 했다. 그날 오후에 헝클리 대관장은 포트하커트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12,0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말씀을 했다. 무려 12시간이나 걸려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내 여러 곳에서 온 수많은 회원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 전에 수백 명의 회원들이 헝클리 대관장의 방문을 맞아 수시간에 걸쳐 벽을 깨끗이 닦고 거미줄을 제거하고 대회장을 정리하여 페인트 칠하고, 쓸고, 조명 기구와 선풍기를 설치하고, 연단을 세우고, 화장실 시설을 마련하고, 휘장을 치고, 화분들을 배치하고, 10,000여 개의 의자를 임대하여 배열하고, 한 스테이크 건물에서 가져온 오르간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등 시민 회관을 깨끗이 단장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면, 특별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돕고자 노력한다면, 교회는 힘차게 성장할 것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베닌 시에서 온 한 자매가 이같이 말했다. “이 대회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가나

월요일인 2월 16일 아침에 헝클리 대관장이 가나 아크라에서 맨 먼저 한 일은 잠

정적인 성전 부지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후 그는 대통령 관저에서 가나 대통령인 제리 존 볼링스를 만났다. 대통령은 1989년에 발효된 정부의 교회 활동 전면 금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과거의 몇 가지 갈등 요소를 철회하며 미래의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헝클리 대관장은 “이제 그 문제는 접어 두기로 합시다.”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헝클리 대관장은 해변가에 있는 독립 광장에 운집한 6,500여 명의 회원 앞에서 말씀을 하였다.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국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케냐

2월 17일 화요일 오후에 아프리카 동쪽으로 횡단한 헝클리 대관장이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그는 호텔의 큰 대회장에서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지에서 온 얼마간의 회원들을 포함하여 약 9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하였다. 나이로비로 오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대고 대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같이 말했다. “여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도들 간에 강한 사랑의 유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솔트레이크 성전 안에서 만나는 회원들의 얼굴에서 보던 똑같은 애정의 유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 전세계 160개국에 흩어져 있는 천만 명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또한 이같은 약속을 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신앙과 인내 가운데 생활한다면 이 땅에 이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성전이 세워질 그 때가 오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수년 내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짐바브웨

2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500여 명의 회원에게 핑클리 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가족, 놀라운 가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해 있으며, 그분을 함께 경배합니다.”

대회에는 짐바브웨 국방장관과 사회 복지 책임자를 포함하여 정부와 종교 대표 여러 명이 참석했다. 대회가 끝났을 때, 회중은 일어나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을 영어와 두 지역어로 함께 불렀다. 무타레 지방부 소속의 아그립바 응등웨 형제가 조각한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의 석조상이 핑클리 대관장에게 증정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2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핑클리 대관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그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성전에 잠시 들러 성전 봉사자들을 격려한 후, 남아프리카의 최대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요하네스버그의 국립 레크레이션 및 전시 센터에서 5,5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말씀을 하였다.

핑클리 대관장은 요하네스버그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참으로 영화로운 때입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교회의 목소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에 핑클리 대관장은 더반에 있는 어느 대회장에서 1,8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했다. 그날 오후에는 케이프 타운으로 날아가 어느 대학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1,500여 명의 청중들에게 말씀을 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더반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여건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믿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

출처: 핑클리 대관장 회고록, 1998년 2월 18일



멕시코 치외와의 회원들이 핑클리 대관장이 떠나는 가운데 고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야할지 근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남아프리카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곳에 오랫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하네스버그에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전역에 집회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늘 어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요하네스버그에 5개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 더반에도 스테이크가 5개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케이프타운 대회장에 도착한 뒤, 그 곳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쓴 개인 편지 묶음을 건네 받았다. 론데보쉬에서 온 클라이브 니콜스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피곤해 보이나요?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모임에 참석한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 부름을 받은 예언자께서 그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지시하고 이끄시기 위해 격려하고, 꾸짖고, 권고를 하시는 가운데 청중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준 눈물과 웃음은 일견 모순되게 보였지만, 성도들과 예언자 사이에 사랑과 애정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핑클리 대관장이 그 다음날 아침 호텔을 떠날 때,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부르며 환영 인사를 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차에 오르는 길에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를 하며, “여러분 모두 나와서 저를 전송해 주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카보 베르데 제도

2월 21일 토요일에 핑클리 대관장은 아프리카 대륙을 출발하여, 그날 오후 카보 베르데 제도의 수도인 프라이아에 도착했다. 그는 카보 베르데의 국무 장관과 만났고 텔레비전 및 신문 기자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다음날인 2월 22일 일요일에 그는 여러 섬에서 모인 약 8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순방길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였다.

수행하던 한 총관리 역원이 이같이 논평했다. “다시 한 번, 핑클리 대관장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기지 않는 열정과 그칠 줄 모르는 열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곳에 행동이 있습니다.”

멕시코, 에르모시요와 시우다드 오브레곤

핑클리 대관장은 3월 9-15일까지의 멕시코 여정의 첫번째 방문지로 에르모시요를 택했다. 그는 이 방문 기간 중에 약



힉클리 대관장이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에서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수백 명의 회원들이 그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53,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수개월 전에 남부 멕시코 지역과 벨리즈를 방문했었다.

에르모시요에서 힉클리 대관장은 이러한 말씀을 했다. “저는 이 대회에 모인 모든 성인들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전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성전 추천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상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며, 서로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비록 교회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며, 그들의 삶을 돕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주님과 맺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늦은 시간 힉클리 대관장은 시우다드 오브레곤에서 3,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말씀하였다. “참으로 여러분은 훌륭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 갈 때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리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힉클리 형제로부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는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스러운 시현을 통해 그분들이 영원한 진리가 밝혀지는 이 위대한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심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콜리칸과 과달라하라

3월 10일 화요일에 힉클리 대관장은 콜리칸에서 4,100여 명, 그날 저녁 과달라하라에서 6,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콜리칸에서 힉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 회원들 못지 않게 강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왕국과 이웃을 강화시키고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참되고 덕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힉클리 대관장은 새로운 개종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재언급하였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을 찾아 내어 그분들을 일싸안고 그분들과 친구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감독과 지부장들은 개종자들에게 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할

일을 주도록 하십시오. 일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팔의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사용하고 가꾸다 보면, 점차 강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개종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신앙가운데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멕시코의 토레온, 레온, 시우다드 빅토리아, 몬테레이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는 속도에 맞춰, 3월 11일 수요일 아침에 힉클리 대관장은 토레온에서 약 5,300여 명의 회원들을 만났고, 저녁에는 레온에서 수천 명과 모임을 가졌다.

토레온의 회원인 빅토리오스 아벤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제 개인에게나 가족에게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벤다의 부인인 노마 올리리아는 이같이 말했다. “합창단에서 노래한 것은 더욱 큰 축복이었습니다. 연단 가까운 곳에서 노래 부르고 앉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저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20년 만에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힉클리 대관장은 3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시우다드 빅토리아에서, 그날 오후에 몬테레이에서 약 1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하였다.

산 니콜스 스테이크 부장인 아베라도 모랄레스 몬네즈는 이같이 말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힉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척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회원들이 그분에게 똑같은 사랑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기쁘며 영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느낍니다.”

몬테레이에서의 몹시 추운 날씨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마 스테이크의 물론 트레비오 합창단 지휘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총관리 역원들이 추위와 비를 맞아 힘겨워

하시면서도 침착히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멕시코, 치와와와 시우다드 후아레스

3월 13일 금요일 밤에 치와와에서 힐러리 대관장은 4,0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멕시코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는 굳건히 두 발을 디디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지도자와 복음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젊은이들을 볼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에 힐러리 대관장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신권 지도자 모임을 감리하였고, 그 다음날인 3월 15일 일요일 아침에 큰 대회에서 말씀하였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인류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체이십니다. 그분은 살과 뼈를 가진 개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부활체이십니다. 성신은 영체를 갖고 있으나 객체입니다. 그분들은 한 개체로 된 세 분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른 개체를 지니셨으나 목적에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지식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소규모 성전 부지를 위한 기공식이 최근에 열린 콜로니얼 후아레스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본지의 콜로니얼 후아레스 성전 기공식 참조)

옥스 장로가 판단할 때와 판단하지 않을 때에 대해 가르침

사라 제인 워버

판단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있으며, 올바른 원리에 입각하여 하도록 한 것은 중간 판단입니다.”라고 3월 1일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말씀했다.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옥스 장로는 이같이 말씀했다. “저는 어느 경전 구절에서는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들에게 판단할 것과 심지어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지침들이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관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매리웃 센터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 대학생 연령의 젊은이 15,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칠십인 정원회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와 그의 부인 매릴린 자매가 함께 동석했다. 교회 위성 시스템을 통해 북미와 카브리해 지역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노변의 모임을 시청했다.

최종 판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옥스 장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말일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을 모든 사람이 여러 영광의 왕국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에 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경전상의 계명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에 가장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 앞서 브리감 영 대학교 매리웃 센터에서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릇된 표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경쟁에 의거하여 승자와 패자를 구분합니다. 최종 판단을 하시는 주님은 한 사람이 받은 법에 대한 주님의 온전한 지식과, 그 사람의 생애 동안의 환경, 동기, 행동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옥스 장로는 심지어 구세주께서도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간음을 범하다 불잡힌 여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판단을 삼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판단이 주님의 것이며 필멸의 인간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최종 관점에서 그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거나 승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결론짓거나 공표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판단에 대해 말씀하면서, 옥스 장로는 필멸의 인간에게 최종 판단을 금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경전은 필멸의 인간에게 중간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죄 가운데의 삶을 말하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꾸짖으실 때나, 부자와 과부가 연보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누구의 상이 큰가에 대해 말씀하시

는 등, 여러 중간 판단을 하셨습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씀했다.

옥스 장로는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에게 판단하라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며, 구세주께서 개인에게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자가 되라고 명하셨다고 전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친구를 선택하거나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을 합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했다.

그는 경전이 모든 사람에게 중간 판단을 하도록 명령 내지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즉 몇가지 지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 장로는 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몇 가지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의로운 판단이 중간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느 한 사람이 승영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기회나 또는 주님의 사업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고 단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개인의 죄를 씻어 내고 용서와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개선하는 구속의 권세를 부인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 의로운 판단은 주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며, 화나 복수심, 시기심, 사리 사욕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이 보내실 보혜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충실한 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세상을 판단(심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의롭다는 것은 판단자의 책무 안에 국한하여 중도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책무에 벗어난 것을 판단하거나 그 판단을 근거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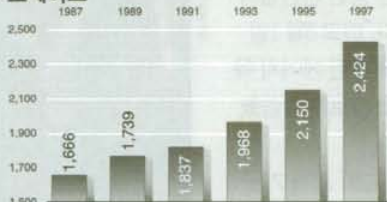
■ 중간 판단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사실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하지 않는다. 한편, 옥스 장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하기도 전에 일차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

도표 작성: 하디 볼 터틀

1997 연례보고

1997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현황 통계 보고, 1998년 4월 4일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스태이크



선교부



총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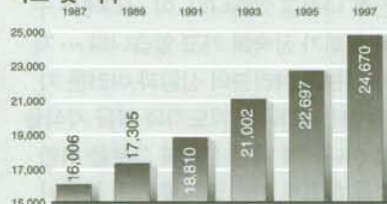
총 선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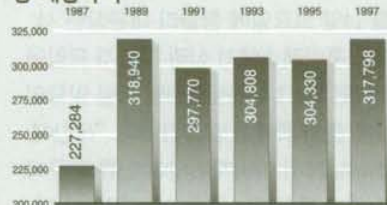
지방부



와드 및 지부



총 개종자 수



와드와 지부가 있는 국가와 영토



1998년 4월 18일, 처치 뉴스 기사 제공

다고 덧붙였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을 위탁 관리해 오던 사람이 횡령죄로 기소되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에게 자신의 평생 저축을 그대로 맡겨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11:12)라는 현대 경전의 가르침에 궁극적으로 의존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중간 판단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단지 상황만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 원칙은 가정이나 직장, 지역 사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표준

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 의로운 판단을 위한 마지막 원리는 의로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불의한 표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불의한 것입니다. 의로운 표준에 못미칠 때, 우리는 부정확하고 불의한 표준에 의해 판단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스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용서하라는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서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중간 판단을 통해 의롭게 판단하라는 계명과 함께 동반하는 원리입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결론지었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1998년 3월 7일

신권에 대한 조명

아론 신권 봉사

교회의 제 4대 대관장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아론 신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만일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가 제사이든 사도이든 다름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사도며 칠십인이며 장로로 있는 동안 내가 제사의 직분을 지냈을 때보다 더 큰 보호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시현과 계시와 성령으로 내 앞에 놓인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신다.” (윌포드 우드럽의 가르침, 지 호머 더럽[1946], 300)

감독의 지시에 따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세속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구세주를 대표한다.

집사는 성찬을 전달하며, 금식 헌물을 거두어 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봉사하고, 성찬식이나 다른 모임을 하는 동안 감독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서 봉사하며, 집회소를 돌보는 일을 돕는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중에 소년단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

교사는 집사의 모든 의무를 그대로 지닌다. 이외에 성찬을 준비하고 물과 빵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경험이 많은 동반자와 함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한다. 이 임무를 행할 때,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명받은 회원들을 살피고 돌보며, 약속을 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봉사한다.

제사는 집사와 교사의 모든 의무를 지닌다. 이외에 그들은 성찬을 축복하고, 침례를 베풀며, 감독에 의해 성임 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다른 제사와 교사와 집사를 성임할 수 있다.

감독과 지부장은 와드와 지부의 아론 신권의 회장으로 봉사한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정원회 공과, 정원회 활동, 소년단 활동, 여러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가정과 가족과 신권 정원회의 가치를 배우도록 도와준다. 감독의 보좌,

정원회 고문, 그 외 기타 청남 지도자는 감독을 도와 이 책임을 수행한다.

관리 감독단과 본부 청남 회장단

가정 복음 교육은 왜 하는가?

물몬의 샘에서, 앨미는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집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라 고” (모사이아서 18:8-9) 말했다.

교회 역사상 어느 때에도 지금보다 더 이와 같은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때도 없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제정된 프로그램으로 신권 소유자들은 이를 통해 봉사를 한다. 가정 복음 교육은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신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해라”는 계명의 기초 위에 제정된 것이다.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신권 소유자들은 모든 말일성도, 특히 과부나 새로운 개종자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있는 가족과 같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말일성도를 돌보며 강화시킨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교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가장 일선에 서있다. 그들은 회원들이 실직하였거나, 아프거나, 이사를 가거나, 다른 긴급한 필요 사항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영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교리와 성약 68:28) 가르치도록 도움을 주며, “경고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교리와 성약 20:59) 한다. 매달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교회 잡지에 나오는 대관장단의 메시지를 전한다. 선임 동반자의 지시에 따라, 아론 신권 소유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은 방문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아론 신권을 지닌 청소년들은 약속을 정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 선임 동반자의 온전

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권 지도자들은 와드나 지부 내의 가정 복음 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1) 가정 복음 교육을 매달 첫번째 일요일 토론의 소재로 삼는다. 2) 매달 그달에 누가 가정 복음 교육을 받았고 누가 받지 않았는지와 같이 매달 구체적인 임무 지명에 관심을 기울인다. 3) 와드나 지부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가정 복음 교육 임무 지명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4) 정기적인 가정 복음 교육 접견을 한다. 우리 모두가 사려깊고, 근면하고, 보살피며 돌보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침례 성약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에서부터

힝클리 자매가 “인류에의 특별 공헌”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받음

물몬 카운셀러 및 심리 요법 의사 연합 (AMCAP)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인류에의 특별 공헌상”이 4월 2일 마조리 피 힝클리 자매에게 수여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열린 상반기 대회에서 힝클리 자매에게 그 상을 수여하면서 AMCAP 회장인 재닛 사만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봉사는 꾸준하고 의연하게 세계 전역의 각양 각색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보이며 행해졌습니다. 힝클리 자매는 세탁소에 일하는 일꾼이나 백화점 점원에게나 정식 만찬에서 고관 대작에게나 한결같은 온화함으로 편안하게 대하셨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이 시기에, 힝클리 자매는, 큰 영향을 끼치는 온갖 작은 일들을 행하며 맡겨진 여러 임무를 용감히 수행하는, 힘과 기쁨을 지닌 여성의 전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부름과 자신의 공적 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을 처리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수상 소감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부인인 힝클리 자매는 자



마조리 피 힝클리 자매가 물론 카운셀러 및 심리 요법 의사 연합(AMCAP)의 회장인 자넷 사만에게서 "인류에의 특별 공헌상"을 수여받고 있다.

신이 "완성한 성취력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을 마음껏 기뻐하며 행복해 하지만 그 초점이 자신에게 비취질 때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의 최선이 여러분의 최선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주림의 고통과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면 화평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보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말했다. "비록 그것이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경우를 통해 그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모범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이끌어 마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22-26 참조] 작은 친절의 행위이지만, 강한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회를 알고도록 도와주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단합하여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과 지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훌륭하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훌륭한 조직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했다.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곤경에 처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수년 전 LA에서 한 광고판에 게재된 글을 읽던 중에 신체적인 문제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와 희망과 일상 생활에 대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 직종에서 모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견디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카운셀러 및 심리 요법 의사 연합은 교회의 원리 및 표준의 고수를 근간으로 하여 카운셀러, 심리 요법 의사, 회원 자격을 갖춘 전문인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 조

입니다."

힝클리 자매가 말씀하시고 난 후에, 힝클리 대관장도 말씀하시도록 초대받았다. "제 생각에 여러분의 이 협회는 참으로 훌륭한 조직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이 전문 분야에

직이다. 하지만, 이 조직은 독립적인 전문 조직이며 교회에 의해 후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 조직의 단원들은 교회나 교회 지도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일년에 두차례씩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들간의 총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를 통해 훈련과 연구 발표와 새로운 처방법과 수개의 선도 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교회 소식 기사 제공. 1998년 4월 18일

예산을 세움으로써 얻은 축복

재니스 스트링엄 르페르

남편과 나는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이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곳에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예산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십일조를 내며 기타 헌금을 하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수년 전에 나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 차가 전과되고 말았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안전 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십일조를 충실히 바쳤기 때문에 보호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돈을 관리함으로써 수많은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경비나 여러 작은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왔음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정이 있다.

어려움이 닥쳐 왔을 때, 우리가 재정 책임을 다하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권고에 충실히 따를 때 궁핍할 때에 하늘의 권세에 의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남편과 내가 때로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가운데 종종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 최근에 아들의 임치료를 하는 동안, 재정 부담과 수입 사이에는 큰 틈이 있었다. 주님은 하

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을 통해 그 틈을 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예산을 세움으로써 나는 전업 주부가 될 수 있었다.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나는 직장을 그만 두었다. 특히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긴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에 따라 충실히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높은 생활 표준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돈이 낭비되는 분야를 살펴 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대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이 재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재정적인 목표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친족들과의 관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추억, 노년 계획, 주거 환경 개선, 여행 계획, 성전 참석, 남편의 직장과 관련된 도전과 목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많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예산을 세움으로써 받은 많은 축복에 감사드린다.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 말씀을 볼 수 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나,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 나의 계명은 영적인 까닭이니라.”(교리와 성약 29:34-35)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균형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인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유지함,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15쪽)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세상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선교부장

1998년 7월

대전 선교부

데이비드 린 와델 선교부장

메사 애리조나 남 스테이크, 메사 9와드, 고등 평의원, 청남 회장단, 와드 청남 회장 및 보좌, 탐험 조연자, 대학 대표팀 코치, 스카우트 단장, 지방부장, 선교부장단, 북극동 선교부의 선교사 등을 역임함. 사업가. 아이다호 주 트릭스에서 부친 데이비드 카이트 와델과 모친 라레나 크리스천 와델 사이에 출생함. 재닛 스티븐스와 결혼하여 슬하에 6자녀를 둠. 그녀는 현재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 스테이크 청녀 야영 책임자, 청녀 회장 및 보좌,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 임원회의 임원, 합창단 지휘자, 청녀 고문 등을 역임했음. 브리감영 대학과 유타 주립 대학을 다녔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부친 프랭크 체스터와 모친 낸시 휘티커 데일러 스티븐스 사이에 출생함.

서울서 선교부

민 헤기 선교부장

부산 스테이크 온천와드, 선교부장단,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지방부장단, 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 신학원 원장,



동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남도에서 부친 민병표와 모친 손인규 사이에 출생. 김성숙 자매와 결혼하여 한 자녀를 두고 있다. 그녀는 현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며, 스테이크 음악 위원회 위원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주일학교 교사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에서 부친 김형경과 모친 박복희 사이에 출생함.

일본 고베 선교부

데이비드 프랭클린 로버트슨 선교부장

뉴욕 요크타운 스테이크, 스탠포드 제 1와드, 스테이크 부장단, 지역 공보부의 위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 감독단, 대제사 그릅 지도자, 북극동 선교부장단, IBM 브랜드 담당 부장, 유러 대학에서 전기 공학 학사를 취득함.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님. 유타 주 로건에서 부친 본 호이트와 모친 클래리스 빌다 앤더슨 로버트슨 사이에 출생함. 매리 맥도날드와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둠. 그녀는 상호부조회 자선 봉사 지도자와 유아반 지도자, 지역 공보부의 위원,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 청녀 회장, 신학 연구원 증등부 교사, 초등학교 교사, 보이 스카우트 위원회 위원장, 레드랜드 대학에서 연설, 영어 교육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 유타 대학에 다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부친 버들 존과 매리 엘리자벳 데이비스 맥도날드 사이에 출생함.

교회 기관 소개

교회 내에는 회원과 회원이 속한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돕기 위한 조직이 있으며, 한국에는 한국 관리본부, 한국 교회 교육 기구, 한국 서울 성전 그리고 한국 선교사 훈련원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교회 기관들을 소개한다. 이 기사는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가나다 순으로 기재한다.

한국 관리 본부

1. 연혁

관리 본부 연혁을 소개하자면 관리 본부의 전신인 한국 번역 출판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한국 번역 출판부는 공식적으로 1963년부터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1969년에 새로운 건물로 옮겨졌고 그 당시 사무실 책임자는 한인상 현 서울 성전장이었다. 당시 번역 출판부에는 번역부, 생산부, 배부부 등이 있어, 교회의 잡지인 "성도의 빛"의 출판뿐만 아니라 경전, 각종 교회 출판물, 시청각 자료를 번역 출판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의 경전이 출판되었고, 용서가 낡은 기적,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개조, 회복된 교회, 복음 교리 등의 주요 서적이 이곳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각종 교재 및 지침서, 교회 양식 등이 출판되었다. 1979년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임대 빌딩에서 한국 관리 본부가 발족되어 그곳에서 시설부, 재정 및 통계 기록, 자재관리 등의 부서가 있어 교회 실무 업무의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3년도에 이 사무실이 신당동에 있는

서울 스테이크 센터로 이사하여 얼마후 관리 본부의 모든 기능을 이곳으로 집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관리 본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2. 관리 본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을 행하는 신권 지도자와 선교사 및 회원들을 교회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교회의 방법대로 돕는 것이다.

3. 관리 본부의 조직 및 주요업무

- 총무부 — 직원들의 채용, 훈련, 관리, 선교사 비자, 법인 업무 및 기타 교회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돕는다.
- 시설부 — 교회의 시설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부동산과, 건축과, 운영관리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동산의 구입 및 전세 계약, 새로운 예배당의 신축, 수리 그리고 교회 건물의 운영과 보수 관리 및 비품들을 관리한다.
- 재정 및 기록부 — 교회의 자산을 관리하며 재정과에서는 교회의 재정, 회계, 세무 등의 경리 업무와 감사를 행하고, 통계 기록과에서는 교회의 제반 보고서를 접수, 분석, 보고하여 회원 기록을 관리한다.
- 자재 관리부 — 번역, 출판, 배부, 구매 및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비품 및 가구 등을 구매하고 성도의 빛 및 교재와 기타 시청각 자료 등을 번역, 출판하며, 가먼트 및 각종 경전, 교재,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부서이다.

4. 관리 본부와 관련되는 주요 통계 (1997년도)

- ㄱ. 직원 - 38명
- ㄴ. 건물 관리인 - 80명
- ㄷ. 와드/지부 수 - 171개
- ㄹ. 스테이크/지방부 수 - 22개
- ㅁ. 집회소 수 - 137개
- ㅂ. 선교사 숙소 - 159개
- ㅅ. 번역(표준 페이지) - 연 3,400
- ㅇ. 물론경 판매 - 연 42,000권
- ㅈ. 성도의 빛 구독수 - 월 6,614권
- ㅊ. 가먼트 판매 - 연 10,845

ㅋ. 주문 처리 - 연 12,081건

5. 끝맺음

어느 귀환 선교부장은 "관리 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주님의 사업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것은 관리 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한국 관리 본부는 세계의 여러 사무실 가운데 운영면에서 가장 우수한 관리 본부로 인정을 받아 왔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리 본부 대표와 함께 모든 직원은 하나가 되어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전화: 02) 232-1441(대표전화)

한국 교회 교육 기구 (신학 연구원)

1. 시작하며 —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8:77-78)

교회 역사의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말일성도 청소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받는 세계적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같은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2. 중등부와 대학부의 시작과 지금

1) 중등부

중등부가 시작된 것은 1912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그레나이트 고등학교 건너편에 건립한 그레나이트 고등학교 세미나리 건물에서였다. 첫 교사는 토마스 제이 예이츠였다. (윌리엄 이 베넷, "주중 종교 교육에 있어서의 기적", 30쪽) 첫 해 등록한 인원은 70명이었지만 1995년에 여러 나라에서 등록한 학생 총 수는 363,202명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 관리자인 로스 에이치 클 형제와 함께 한 한국 교회 교육 기구 직원들

2) 대학부

대학부의 시작은 1926년 10월 하순, 아이다호 주 모스코(Moscow) 시 소재 아이다호 대학교 대학부 건물에서였다. (같은 책, 49, 265쪽) 담당 교사는 제이 와일리 세션스였으며 첫째 등록한 수는 25명이었으나 1995년 학년도 등록 학생 수는 221,849명이 되었다.

3)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1972년 3월이었다. 당시 선교부장이었던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의 도움과 주선으로 당시 지구 관리자(Zone Administrator)였던 프랭크 디 데이 박사가 내한하여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 개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교회 교육 기구 본부에서는 이호남 형제를 한국 신학 연구원 초대 대표(Area Director)로 임명하였다. 첫 입학식은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남강 빌딩 3층에서 가졌는데 그 때가 1972년 8월이었다. 첫 등록생 수는 일반 성인을 포함하여 402명이었다. 1997학년도 대학부 등록 현황은 대학생이 952명이었으며 독신성인과 성인 등록생 수가 1,589명이었다. 중등부는 연말까지 1,112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도 1학기 등록을 보면 대학생이 803명이었고 독신 성인과 일반 성인 등록수가 1,543명, 중등부는 연초 등록이 754명이었으나 연말에 가면 작년 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졸업한 수는 1,757명이다.

교육 대상은 중등부가 14-17세(중3-고3)의 청소년이며 대학부는 18-30세의 모든 대학생 및 독신성인들이다.

신학 연구원은 서울 동·서울 서·부산·광주·중부 등 다섯 곳에 있고 전임 교사가 13 명이며 자원 교사는 대학부에 4명 중등부에 170명이 있다.

3. 교회 교육 기구의 목적

교회 교육 기구의 종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 가족 및 신권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1) 학생들에게 표준 경전과 예언자들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

2)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할 때 격려와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훈과 모범으로써 그들을 가르침.

3) 학생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이며 사교적인 환경을 제공함.

4) 효과적인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준비시킴. (복음을 가르침, 3쪽)

4. 끝을 맺으며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은 신학 연구원에 관련하여 이렇게 권고하였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67쪽)

“우리의 위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훈련 사업은 계속 확대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복음 지식이 증가되고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 우정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 드립니다.”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82쪽)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체계적으로 경전을 연구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경전을 탐구할 수 있으며, 영성을 키우고 간증을 강화 시키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 해당 되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신학 연구원 주소와 전화 번호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14 Tel. (02) 928-0033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18 Tel. (02) 336-1347

광주 신학 연구원 광주 우체국 사서함 86호

Tel. (062) 224-4535

부산 신학 연구원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 15-

18 Tel. (051) 862-9415

중부 신학 연구원충북 청주시 사창동 155-8

Tel. (0431) 271-9415

한국 서울 성전

1. 연혁

1981년 4월 1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한국 서울 성전의 건립을 발표하였다. 성전 건립 발표로부터 2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걸친 후인 1983년 5월 9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감리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 기공식에는 애쉬튼 장로 이외에도 당시 지역 회장인 윌리엄 알 브렛포드 장로, 동경 성전장으로 봉사 중이던 애드니 와이 고마쓰 장로,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 및 복음 선교사들이 참석하였다. 서울 성전은 1985년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고든 비헝클리 당시 부대관장에 의해서 헌납되었다. 정초식은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거행되었다. 정초식과 헌납식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였던 하워드 드블류 헌터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본부 성전과의 관리 책임자의 일원이었던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지역 회장단의 브렛포드 회장, 디아커 장로, 월콕스 장로가 총관리 역원으로 참석하였다. 헌납식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섯 번에 걸쳐 반복되었다.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형제 부부가 초대 성전장단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하였으며, 현재는 한인상 장로 부부가 1997년 9월 1일부터 5대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의 부름을 수행하고 있다.

2. 성전 의식

성전의 모든 의식은, 교회의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라, 성전장의 지시 하에 준비되고 집행된다. 현재 서울 성전에는 각 요일에 지명된 의식 봉사자와 제한 의식 봉사자를 합쳐 500여명에 이르는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고 있다. 각 요일에는 그날의 모든 의식을 지명하고 진행하는 팀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전장단 일원의 도

움을 받아 해당 요일의 모든 의식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성전의 의식 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리 침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매년 의식 일정표에 나와 있는 계획에 따라 가지며, 방학 기간동안의 침례식은 성전과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리 예비 의식: 성전 선교사들에 의해 집행되는 대리 예비 의식을 제외하고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 30분과 저녁 6시 30분에 있으며, 사전 약속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대리 인봉 의식: 성전 선교사들에 의해 집행되는 대리 예비 의식을 제외하고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있으며, 사전 약속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엔다우먼트 의식: 사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토요일 새벽 6시 의식을 제외하고,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이 집행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일주일 전에 성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한다.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필요한 경우 매 20분 마다 추가 의식)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필요한 경우 매 20분마다 추가 의식) 토요일: 새벽 6시 (필요한 경우 매 20분마다 추가 의식)

서울 성전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은 자신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들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전년 대비 의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산 스테이크, 대구 스테이크,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에서 매달 한 번씩, 대전 스테이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하여 많은 의식에 참여하고 있어 그 신장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3. 끝맺음

우리가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금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전 의식이 회복된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다고 간증합니다만, 우리는 이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방대한 가족 역사 사업은 전부 성전 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화: (02) 334-9100

한국 선교사 훈련원

1.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조직(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나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14)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여 승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 사업의 중요한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 바로 선교 사업이다. 주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집에 선교부를 세우시고(마가복음 9:23)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마태복음 10:1)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훈련시켜 둘씩 짝지어 나가서(마가복음 6:7) 모든 촌(도시)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도록 명하셨다.

2. 연혁

말일에 회복된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주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원이 있다. 이 훈련원을 통하여 훈련 받은 선교사

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 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은 실로 기적이 가깝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은 1980년 7월 이도환 초대원장과 함께 2명의 선교사(이신영 장로, 박병주 장로)로 출발하여 5일 동안의 훈련일정으로 시작하여 그 첫 해에 총 16명의 선교사가 훈련원을 통하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김차봉 원장, 이호남 원장 등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의 배출을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다. 후에 성전장으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현재는 교회 교육기구 대표로 계시는 박병규 장로가 원장으로 봉사할 당시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면서 훈련 일정을 5일에서 12일로 연장하게 된다. 그 이후 홍무광 원장과 최근에 작고하신 서원 원장을 거치면서 훈련일정은 현재의 19일로 늘어났다.

현재 한국 선교사 훈련원은 도길회 원장을 중심으로, 훈련 감독에 조옥수 자매를 비롯한 4명의 시간제 교사(김미연 자매, 김선희 자매, 권경숙 자매, 박종성 형제) 그리고 22명의 자원 봉사 교사들이 19일간의 훈련을 맡고 있다.

3. 목적 및 훈련과정

선교사 훈련원의 목적은 첫째는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배우고, 둘째는 선교 사업 기술을 습득하며, 셋째는 선교사들이 영을 느끼고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19일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배워 나가는데 그 과정은 크게 결심 본보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선교사 토론, 경전 사용 방법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선교사들은 세번의 성전 의식을 통해 그들이 선교사로써 더욱 정결케 되고 권능있는 자로써의 역할에 전념하는 기회를 갖는다.

4. 끝맺음

지난 7월초 현재 총 2,065명(장로 1,010명, 자매 1,025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선교사 훈련원을 통하여 배출 되었다. 우리는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도시)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10:33)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선교 사업을 행할 것이며,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이 훈련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화: (02) 336-5373

질문:

어린이들을 어떻게 성찬식에서 경건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

- 1)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곁에 치워 둔다. 무의미한 낙서를 하거나 소지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한다.
- 2) 성찬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을 나타내 보인다. 축복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빵과 물이 전달될 때,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친다.
- 3) 교회 모임 공책이나 일지 같은 것에 연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다.
- 4) 성찬식에 정시보다 조금 빠르게 도착하여 좋은 자리를 잡아 처음부터 예배를 기쁘게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31페이지 발췌)

독자의 의견:

교육의 성과는 하루 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성찬식에서의 아이들의 경건한 태도는 부모의 주의와 평소 아이들과의 대화 또는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을 가르친다.
- 2) "쉿"하는 소리보다는 그냥 부모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린다.
- 3) 복장 : 정장을 입은 부모의 복장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한 뒤, 부모와 같이 정장을 한 자녀를 칭찬해줌으로써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심어준다.

이러한 것들을 가정의 밤 공과 시간을 활용해도 좋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범이다. 자녀가 떠들어 성찬식 시간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을 잊게 된다. 자녀와 함께 앉아 가끔 자녀의 머리도 만져주고 손을 꼭 잡아 주거나 자녀가 혼자 앉아 있어야 할 경우 자녀의 눈을 바라보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네가 최고"라는 싸인을 보내준다.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 박정희 자매)

- 1) 성찬식에서 울거나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아이들의 욕구나 생각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부모이다. 가능한 성찬식에서 잘 견디고 성찬을 취하는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부모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분위기를 빨리 바꾸어 주어야 한다. 성찬식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이를 달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성찬식에서 경건해야 함을 스스로 아이가 터득할 때까지 부모가 교대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반복 교육을 해야 한다. 주님의 영의 인도와 부모님의 사랑에 찬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아이들은 성찬식에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준비된 교사들의 도움이 이러한 부모의 노력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3) 회원들의 성찬식에서의 경건한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쉽게 본받는다. 성찬식 시간, 어른들이 소근대면서 아이들이 조용히 경건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천 스테이크 게산 와드 홍유남 형제)

삼척 지부는 아직 말일성도가 부족해 없기 때문에 말일성도 2세가 없지만 어린이가 한명 있다. 이 어린이는 성찬식에서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를 보인다. 회원들이 말

씀을 나누며 경전 성구를 찾을 때, 그도 같이 물몬경을 꺼내 읽는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맑은 목소리로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 어린이를 보면 마치 전세에서 성인이었던 모습이 지금 그에게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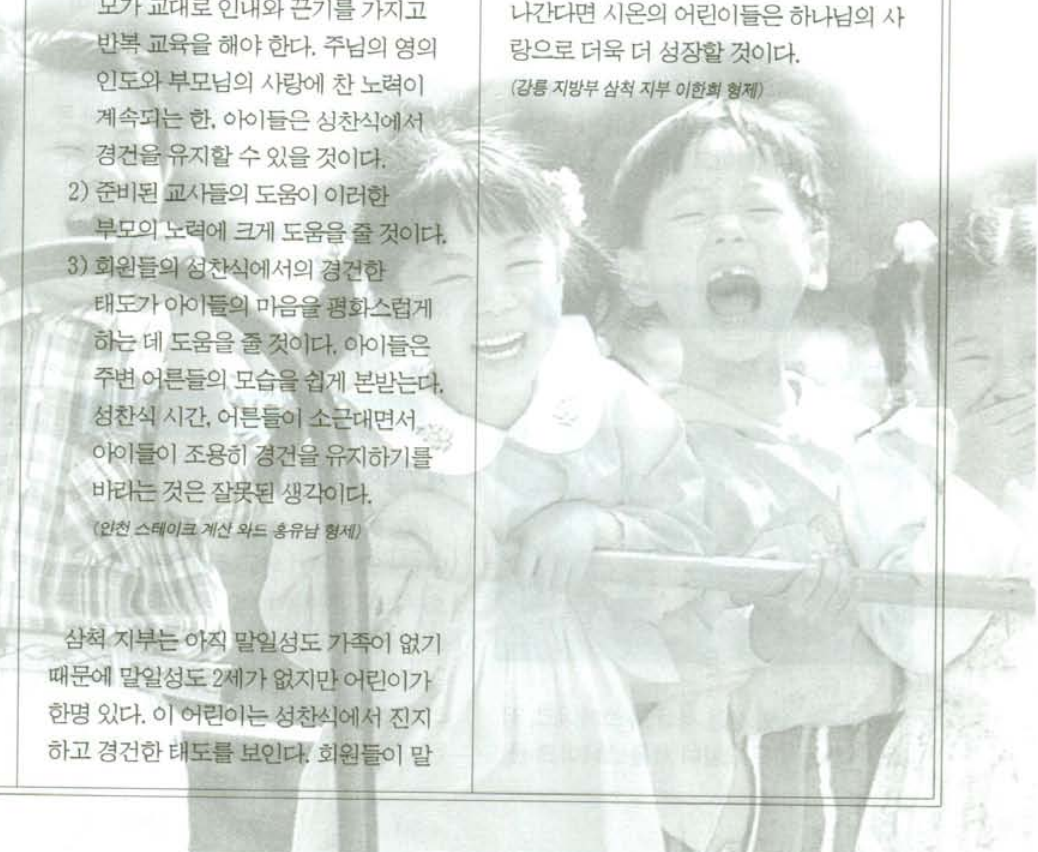
그 어린이가 이처럼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족 때문이다. 부모님은 비회원이지만 자녀들은 모두 말일성도이다. 자녀들이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주님을 찾고 간구한다.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주님의 말씀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가르침때문에 이 아이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다.

그 어린이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송해서 경건하게 성찬식에 임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생활할 것을 가르쳐 나간다면 시온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이한희 형제)



교육 방송을 통해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전국에 소개

서울 선교부장단 제 1보좌인 허용환 형제는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 교육방송의 '모닝 스페셜(담당 PD 박설림)'에 출연하여 교회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회사원, 공무원, 주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청취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교육 방송이 자랑하는 간판급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회의 무료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물론 교회를 알리는 매우 훌륭한 기회였다. 방송 직후 3일간 전국으로부터 약 2천통의 문의 전화가 선교부와 허형제 개인 사무실로 걸려왔으며(7월 중순까지 약 4천통의 전화가 걸려옴), 이로 인해 서울 선교부는 정상 업무가 이를 간 마비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다. 방송에 나갔던 허형제는 "방송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전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한통, 한통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확실한 구도자라는 생각이 미치자 정말 신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영어 회화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알리고 복음에 관심있는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울 북, 서울 서 스테이크

특별독신 합동 모임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울 북 스테이크, 서울 서 합동 독신 모임이 서울 스테이크 센

터에서 열렸다. 다가올 청년 대회에 앞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된 이 모임에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비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기회를 갖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모임에는 약 80명 가량이 참석하였다. (김희진)

미군 지방부 특별독신 모임

6월 12, 13, 14 일 삼일간 미군 지방부 특별독신 성인 모임이 신당 와드에서 있었다. 이 모임의 주제는 "가치있는 삶을 삼"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한국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12일 저녁 노년의 밤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약 30명가량이 모인 이 모임은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로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군인 독신들에게는 부대를 벗어나 한국 음식과 한국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고아원을 방문하여 한국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들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독신들은 한국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 모임중인 13일 토요일에 침례를 받은 한나 자매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독신들을 알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 (라이언 라이트)

서울 북 스테이크

제 7회 여성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녹번 와드에서 120여 명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7회 여성 대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7장 23절 "...범사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 세상의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나 필요한 대로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를 주재

로 한 이번 대회에서, 먼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허민자 자매는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을 소중히 하며 가족 선언문을 상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윤덕순 고등평의원과 김치원 형제, 박순주 자매는 모든 회원들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며,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경제 공황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상호부조회 회원들 모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실력과 건강을 지니고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간증도 함께 나누었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비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쌀 보관법과 비상용 식품을 소개하였다. (양창섭)

강서 스테이크

전반기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5월 17일부터 6월 21일 까지 5주동안 매주 안식일 저녁 7시에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교사자질 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좀 더 영적인 공과로서 반원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스테이크 회원 45명이 등록하여 교회의 원리와 복음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면서 또한 반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웠다. 이

로소 평소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과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사가 가장 중요한 부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료증을 받은 회원들은 35명이었으며 수료증을 받은 회원들은 다른 회원을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훈련 모임을 통해 감서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사모임을 계속하여 스테이크 회원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병헌)

인천 스테이크

온누리 합창단과 함께 한 노년의 밤



지난 6월 28일 저녁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온누리 합창단과 함께하는 노년의 밤이 있었다. 개회와 폐회 순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온누리 측에서 준비한 대로 진행하였으며, 마치 합창단원들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발표를 보는 듯했다. 유상길 형제의 "주기도문" 독창을 비롯한 세명의 독창과 이중창 등 모두 여섯곡의 찬송가 합창과 중간 중간에 곁들여진 간증 말씀은 매우 영적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기만 형제와 김재숙 자매는 노래에는 별로 소질이 없던 본인들이 합창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간증하였다. 또한 합창단의 후원 회장인 송평종 형제는 이제

명실공히 우리 나라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했으나 경제적인 자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 대회 및 알뜰 바자회



지난 6월 27일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상호 부조회 여성 대회가 있었다. 1부에서는 영적인 말씀과 각 와드/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들의 간증을 들었다.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말일성도 자매들은 국가 통치자를 지지하고 존중하듯 신권의 권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형제를 지지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계산 와드의 오신규 자매는 60세가 다 된 나이이지만 항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매일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열린 비축 및 가사 활동 전시회와 알뜰 바자회는 임시 장터를 방불케 할 만큼 성황이었다. 출품된 옷가지들은 거의 헐값에 팔거나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스테이크 회장단이 준비한 말린 조기와 기타 건어물 및 미숫가루 등도 많이 팔렸다. 전체적으로 I.M.F. 시대를 알뜰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성열)

대전 선교부

영어 말씀 대회

지난 5월 30일 대전 선교부에서 주최한 영어 말씀 대회가 칠십인 지역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전주 스테이크



대전 선교부 주최 영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들

센터에서 열렸다. 각 지역의 예선을 거친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그리고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부로 나뉘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경합을 벌였다. 초등부에서는 전주의 이후영 형제가 1위를 차지했고, 중·고등부에서는 광주 스테이크의 김세정 자매가 1위를, 전주 스테이크의 김자연 형제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치열했던 일반부에서는 대전 스테이크의 임진옥 자매가 1위를, 광주스테이크의 강진희 자매와 전주 스테이크의 김수석 형제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특수부에서는 전주 스테이크의 이진우 자매와 이대우 형제 남매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가정에 관한 따스하고 감동적인 내용의 말씀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대회에 참석한 비회원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다.

(신혁)

대전 선교부장 귀환 노년의 밤

6월 20일과 6월 28일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의 환송 모임이 광주와 대전에서 열렸다. 광주에서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부장은 선교사업의 성공 사례와 개종한 회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감사를 표하였다. 30년 전에 홍병식 선교부장에 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던 현재 광주 과학 기술원 원장이 함께 참석해서 옛 기억을 더듬으며 모임을 빛내주었다. 귀환을 환송하기 위해 남성 중창을 들려 주었고,

초등학교 최찬일 형제의 바이올린 연주와 양혜란 자매의 플루트로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연주함으로써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한편 선화 와드에서 열린 대전 스테이크의 송별회에서 송운현 스테이크 부장은 3년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온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봉사한 홍부장 내외의 노고에 대하여 모든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하였다. 이어서 홍병식 부장은 한국 최초의 회원끼리 결혼한 부부였으며, 제 2세대가 이미 대전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제 3세대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첫째, 나는 행복하겠다고 결심하고, 둘째, 절대적인 정직을 실천하며, 셋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부산 스테이크

수정와드 '98 영웅의 밤

지난 6월 13일 수정 와드에서는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웅의 밤 모임이 있었다. 참석한 구도자를 소개와 간증 순서 진행된 이 모임에서 신준호 형제는 세상적으로 힘들 때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신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하였고,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은 영웅이란 사람을 돕고 향상시키는 사람이라며 우리 개인은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활동 순서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들로 모든 참석자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히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희숙)

제 4 회 여성대회



지난 6월 14일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에서는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여성 대회가 개최되었다. "가정 생산 및 비축의 원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모임의 말씀 순서에서 이정희 자매는 어려운 시기에 비축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히 영적인 비축을 강조하였고, 양기욱 부장은 여러 가지 이상 기상 현상을 보며 노아의 방주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이인 이무정 자매는 몇 년 전에는 앞선 이야기였으나 지금은 절실한 비축 프로그램에 대해 물질적인 비축, 영적인 비축, 예의적인 비축, 육체적인 비축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말씀 중간 중간에 곁들여진 각 와드에서 준비해 온 시낭송이나, 악기 연주, 중창, 독창 등 음악 순서들은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이희숙)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 대회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부산서 지방부에서는 칠십인 지역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물문경 1일에 15분 읽기, 아침 저녁 기도하기, 매주 가정의 밤 실시 등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신앙이 강조된 이번 모임에서 김해 지부 김영일 형제가 새로운 지방부장단 제 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송경림)

역원 변경

수원 스테이크

권선 와드 감독: 안재혁
(전임자: 최원표)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지부장: 김동의
(전임자: 박장규)

여수 지부 지부장: 백용실
(전임자: 류금남)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지부장: 정성호
(전임자: 탁의형)

속초 지부 지부장: 외일드 장로
(전임자: 박창희)

주문진 지부 지부장: 홀 장로
(전임자: 황인량)

조직 변경

전주 스테이크

정주 지부가 정음 와드로 승격
(신임 감독: 김현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21기 3명 / 해외 1명



김소향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부산 선교부



명희선

부산 스테이크
제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민진홍

서울 서 스테이크
상도 와드
대전 선교부



이주연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미국,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